

# 5·18 작품 속으로 들어간 10대들 “5·18 담는 화가·디자이너 될래요”



중국 스타 작가 류 샤오둥 작품에 모델로 참여한 김준수(왼쪽부터)·조우영·정주연·박창희·전진성 학생.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014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참여 작가 중 한 명인 중국 스타작가 류 샤오둥이 최근 한 달간 광주에 머물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그는 80년 5월 현장과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모델로 34년 전 그날의 비극을 화폭에 담았다.

“시간”이라는 타이틀로 이번 비엔날레에 전시되는 작품의 모델이 된 이들은 미래에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여 작가를 꿈꾸는 10대들이다. 미술과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미래 진학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 이번 경험은 큰 자양분이 됐다.

지난 20일, 80년 5월 광주의 현장이자, 류 샤오둥 작품의 배경이 됐던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서 김준수(광주고 3년)·조우영(금호고 3년)·전진성(풍암고 3년)·박창희(여·광주여고 3년)·정주연(여·상무고 3년) 등 참여학생들을 만났다. 이 학생들은 지역 학교와 미술 학원 신청자 중 류 샤오둥의 서면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

그들은 “역사적 사실들을 작품에 녹여내는 화가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96년생 동갑내기인 이들에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어쩌면 학교나 교과서에서, 또 부모님을 통해 전해들은 먼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작가의 화폭 앞에 모델로 서면서 간접적으로 그날의 비극을 경험했다.

준수 군은 5·18 희생자로 그려졌다. 그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 2014 광주비엔날레 작가 류샤오둥 작품에 모델로 참여 미술·디자인 공부 미대 준비... “이번 경험 자양분 될 것”



5·18 현장과 광주의 10대 청소년들을 주제로 작품을 그리고 있는 류 샤오둥.

앉드렸다. 류 샤오둥은 광주를 떠나기 전 작업일지와 사진을 보여주면서 준수 군의 모습을 “나 자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준수 군은 “옛 전남도청은 5·18이 시작된 곳이자 끝난 곳이다”면서 “역사의 현장에서 그날의 한 장면을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나 자신에게 큰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공간 디자이너를 꿈꾸는 그는 “디자인이 꼭 미래 지향적인 것만이 아닌 역사적 사실들을 작품에 녹여내는 한다는 사실을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시대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서양화를 배우고 있는 주연 양은 희생자로 표현된 준수 군의 모습을 보면서 80년 5월 현장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당시 상황에 어쩔할 바를 모르는 소녀가 됐다.

프리다 칼로를 좋아한다는 주연 양은 “작품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막상 모델로 서고 준수군의 모습을 보자 감정이 이입되면서 안타까움이 느껴졌고, 내 스스로가 처량해지는 기분도 들었다”며 “우리들의 참여와 전시될 작품이 5·18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작가에게 보낸 프로필에서 꽃무늬 옷을 입고 있는 창희 양의 모습은 류 샤오둥에게 커다란 인상을 안겨줬다. 류 샤오둥은 “꽃”이라는 소재가 5·18의 비극과 대조적이어서 그날의 느낌을 잘 표현해주는 것 같다”며 작품에도 그 옷을 입고 있는 창희 양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그녀는 실제 당시의 눈높이에서 5·18을 느껴려고 했다고 전했다.

창희 양은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람과 기술의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자인 공학을 배우고 싶다”며 “손등의 작은 상처까지도 놓치지 않는 작가님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디자이너를 꿈꾼다는 우영 군은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역사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일베’ 등에서 5·18이 왜곡되는 현실을 보고 가슴아파하기도 했다.

우영 군은 “이번 작품과 같은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5·18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막연한 상업적 디자인보다 나만의 색깔이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평소에도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진성 군은 이번 작업에 앞서 5·18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봤다. 점차 잊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안타깝기도 했다. 본인이 하나의 작품이 된다는 사실에 이번 프로젝트가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작품이 34년 전 그날과 오늘날의 간극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며 “전시되는 작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5·18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같이 공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시향 “젊은 인재를 찾아라”

관·현악, 피아노, 성악 3개 부문 협연자 공모

광주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은 연주자들에게 의미있는 무대다. 하지만 지역 출신 연주자들에게 협연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지난 2010년 협연자 오디션 개최 후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오 랜만에 협연자를 공모한다.

올 초 이현세 상임지휘자 부임 후 광주시향이 지역 출신 재능 있는 젊은 음악인 발굴을 위해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협연자 오디션은 관·현악, 피아노, 성악 3개 부문을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관악과 현악 부문 협연자를 선정하며 2015년 신년음악회 무대에 서게 된다.

참가 자격은 광주·전남 지역 출신의

대졸 이상 관·현악 연주자를 대상으로 열리며 참가 곡목은 오케스트라와 연주 가능한 협주곡 전 악장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22일부터 29일까지다. 교향악단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를 다운 로드받은 후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이메일(symphony@gso.or.kr)로 보내면 된다. 오디션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광주시립교향악단 연습실에서 열린다. 오디션은 양보로 연주해야 하며 반주자를 동반해한다.

2015년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524-5086.

/김미기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재단, 단체 관람 학생 교육자료 개발

### ‘광주비엔날레 Edu pack’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단체 관람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최근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만든 ‘광주비엔날레 Edu pack’에는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의 역사와 의미, 동시대 현대미술의 흐름, 현대미술 감상 노하우, 2014광주비엔날레 전시의 성격 및 대표작 등이 담겼다.

초·중·고교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 현대미술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던진다. 미술 교과서에 등장하는 팝아트와 미니멀아트, 설치미술, 여성주의 미술 등 이론과 함께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전시 기획하기 등 실습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분량은 12페이지로,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http://www.gwangjubien-nale.org)에서 무료로 다운받거나 현장에서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한편 김승환 조선대 미술교수 박주리 일곡중 미술교사가 감수를 맡았다. 문의 062-608-422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페이지(http://www.gwangjubien-nale.org)에서 무료로 다운받거나 현장에서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한편 김승환 조선대 미술교수 박주리 일곡중 미술교사가 감수를 맡았다. 문의 062-608-4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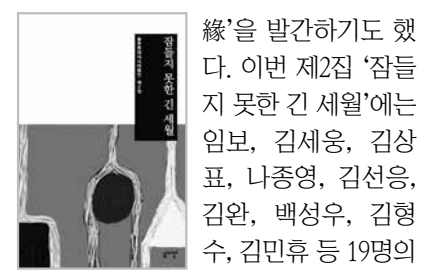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고 문예반 출신들 ‘잠들지 못한 긴 세월’ 펴내

### 늘푸른아카시아, 26일 출판회

광주고등학교 문예반 출신들로 구성된 ‘늘푸른아카시아동인’(회장 이상렬)이 ‘잠들지 못한 긴 세월’(심미안)을 펴냈다.

늘푸른아카시아동인은 박성룡, 박봉우, 윤상하, 주명영, 강태열, 정배일, 김중배, 김우창, 이상부, 문순태 등 수많은 문인을 배출한 광고출신 문예반으로 구성된 문학단체다. 지난 2001년 제20회~30회 동문들이 졸업 후 다소 느슨해진 문학에 대한 열정을 다시 지피기 위해 결성했으며, 2005년에는 제1집 ‘동



늘푸른아카시아동인은 오는 26일(오후 5시) 광주 서구 시청자미디어센터(2층 메인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010-8897-2405.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정남진 정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선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뷰시,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명소에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철도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별장.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양력유 재판

**급히 찾고 있습니다**

1.조건만 맞으면 바로 계약들어 갑니다

- 0.공시지가.감정가 이하의 모든 부동산
- 0.상가빌딩,상가주택,원룸,가든,모델...
- 0.단독주택,다가구,빌라,농촌 주택등등
- 0.임야,전,담등등(특히 국도변 우선)

2)이런분들이 좋습니다

- 0.기업사립자금 담보용으로 쓰실분들
- 0.빌딩 시육용,상가,원룸등월세및투자 할분들
- 0.단독,농촌주택 거주할 노인분들
- 0.한옥 카페하실분들
- 0.태양광,전원주택,농장하실분들등등...

3)부동산이라면 뭐든 연락주세요

- 0.건물,대지,전,담,임야 종류에 관계 없습니다
- 0.서울,대전,광주,목포등 지역에 관계 없습니다
- 0.많거나 적거나 금액에 관계없습니다
- &&&지급 바로 연락주세요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하루 하루가 살맛납니다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부동산,건강,생활 정보가 가득합니다

동부소방서사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첨단지구 CGV영화관 옆 건물

3층 근린상가 건물매매

노후보장!  
월 수익형!

감정가  
18억4천4백만원

매매가 16억

또는 5억  
투자하시고  
매월 월세  
300만원씩  
받아 가실분

문/의/전/화  
010-2804-0632

### 경매

영광 백수해안도로부근  
대지 10,730㎡  
펜션부지적합

감정가 5억4300만원  
최저가 5억4300만원

신안 증도면  
대지 4,858㎡  
엘도라도500m거리  
펜션부지,계획관리지역  
최저가 3억994만원

화순 도곡면 도곡원천영  
3.4층 무인숙박시설  
대지 2,057㎡  
건물 2,332㎡  
주변개발호제있음  
복층형,실내 고급인테리어

감정가 24억9천만원  
최저가 17억4천만원  
※이외 다수물건 확보

경·공매전문 이 주원  
010-7171-7610